



포장업계 발전 · 변화주도

상품 경쟁력 높이는데 주력

최승만 / (주)윤호테크 개발 기획부 차장

2 001년도 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한 윤호테크의 최승만 차장은 “어려운 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해 감개 무량합니다. 부족함이 많은데도 합격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라고 소감을 대신했다.

또한 “포장기술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업무 영역과 캐리어는 나에게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 부럽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저도 저렇게 포장전반에 대해 폭 넓은 지식을 갖출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된 것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게 된 배경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승만 차장은 대학에서 고분자 공정을 전공한 후 SKC에 입사한 이래 연구소에 있으면서 증착, 도금, 코팅, 공정관리, 공압출, 그리고 포장용도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터 필름 개발에 이르기까지 포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경험을 쌓아 왔다. 얼마 전에는 좀 더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자 업무영역을 좀 더 넓혀 (주)윤호테크로 근무처를 옮겨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전기, 전자 부분의 포장개발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장은 “포장 기술사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장 업무의 전 과정 중에서 어느 부분에 기술과 자금을 집중하고,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포장 기술사는 이를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1세기 환경 경영시대에 맞게 관련법과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요즘, 업계의 오피니언(Opinion) 리더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환경경영에 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포장업계의 변신을 주도하는 역할도 포장기술사로서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피력했다.

최승만 차장은 “앞서 언급한 환경경영에 맞는 개념의 포장의 개발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포장기법의 개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포장은 단순히 상품의 보호 · 보관 · 운송으로 대별되던 시대에서 상품의 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포장의 역할 또한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판매 촉진의 기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이와 동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구(적정포장, 재활용, 제조물책임, 배리어프리 등)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장기술사로서 바람이 있다면 일본과 같은 포장 선진국 수준의 시스템이 한국에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고 정착되길 바라며, 앞으로 여러 포장인들과 함께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최승만 차장의 포장기술사로서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 본다. [K]